

〈필자의 말〉

필자가 정신대의 발자취를 찾아 그들의 비참한 과거를 밝혀 보려는 데에는 내 나름의 이유가 있다.

1944년 12월 내가 이화여자전문학교 1학년 때 일제가 한반도 각지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여성들을 마구 정신대로 끌어가느라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서둘러 결혼하기 위해 자퇴를 하기 시작하자 당황한 학교 당국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말하는 데 너희들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얼마 뒤 우리들은 국민 총동원령에 응한다는 서식에 지장을 찍어야 했다.

나는 부모님의 권고에 따라 학교를 자퇴해 정신대를 모면했지만 그 무렵 내 또래의 많은 처녀들이 일제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20세기에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이 자칫하면 21세기에까지 이어져, 제2차 세계대전조차 들은 적이 없는 세대에게로 옮겨갈 것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나는 이 일만은 잊어버려서는 안되고 역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야 한다는 믿음에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만일 일본이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을 왜, 어떻게, 얼마나 끌고갔으며, 무슨 짓을 했는지, 전쟁 뒤에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지를 진작 밝히고 응징했다면 오늘날처럼 기지춘에서 또는 관광지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외화벌이에 나서서 한국의 매춘여성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키나와와 그밖의 여러 곳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우리의 여성들이 전후 연합군 위안부로 고스란히 넘어간 경우를 발견하고 이런 느낌은 더욱 절실했다.

이 글은 1980년 12월, 1988년 2월과 8월, 그리고 지난해 7월 등 네차례에 걸쳐 일본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타이완 차이, 파푸아뉴기니-그리니카 우리 정신대의 피눈물 자국을 따라 현지 신문 등 옛자료를 뒤지고 관계자들의 증언을 모아 작성한 기록이다.

일본 오키나와의 나하 남쪽에 있는 이토 만시의 평화기념공원에는 일제 때 징용간 한국 젊은이를 위한 위령탑이 있고 이은상의 만가화 조사가 세워져 있다. 그러나 이 민족의 처절한 고난을 짊어졌던 ‘정신대’라는 이름의 위안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

죄악상 감추려 자료 없애

위안부 문제가 왜 이렇게 등한시되고 있는가? 첫째 이유는 우리쪽의 기록이 없기 때문일 것이고, 두번째로는 정신대로 나간 여성이 거의 서민층 출신인 데다가 여자들이 때문에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외면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상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있는 자료도 폐기했을 뿐 아니라 당시 장교였던 요시다 세이지를 제외하고는 정신대 연행에

관계했던 관리들이 절대로 입을 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제작년 8월 두번째로 일본 홋카이도에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일본 주민과 징용갔다가 살아남은 한국 남성 그리고 징용병의 아내(한국 여성)들의 증언, 당시의 기록 등을 통해서 한국의 어린 딸들이 이미 1910년 무렵에 일본으로 갔다가 속아서 일본 노동자와 한국 노동자를 상대로 매춘을 강요당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은 개항 이후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축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에도시대부터 시작한 홋카이도 개척, 러시아전쟁에 이겨서 떠난 이권인 연해주지방의 벌목, 그 연안의 어획, 그 시대의 에너지원인 채탄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일본 남성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지자 일본은 1910년 조선을 합병하고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쌀

증산계획과 함께 중국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인 노동자의 입국을 엄히 막던 1899년의 칙령을 폐지하였다.

〈자치연 삿포로〉에 의하면 1939년의 한국인 강제연행수는 일본 전역에 5만2천1백20명인데 1945년엔 1백51만1백4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 한국 여성들이 갔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없다. 그러나 ‘홋카이도 개척수난자 조사위원회’의 위원중 한 사람인 가타다 세이치는 그들이 왔었으리라는 굳은 심증을 가지고 있었다.

제작년 여름 삿포로에서 만난 불고기집 ‘신생식당’ 주인 김달선(68, 16세 때 징용에 끌려간 경북 상주 출신)씨와 나이에의 불고기집 ‘남대문’의 여주인 이종혜(70, 19세 때 징용간 남편 따라 도일)씨의 증언, 가타다의 조사, 〈자치연 삿포로〉와 ‘역사교육자협의회’ 마쓰마에 세일의 출판물, 하코다테 YWCA에서 만난 국교교사 아사리 마사요시의 자료를 참고하면 홋카이도로 끌려간 한국 여성의 상태는 대략 이러했다.

한국 여성들은 당시 조선에서의 생활이 어려워 배불리 먹고 돈 벌 수 있다는 일본

1 홋카이도

인의 말을 믿고, 한 부류는 동해를 건너 홋카이도의 하코다테 아니면 오타루항구에 도착했고, 또 한 부류는 현해탄을 건너 오사카 방직공장 직공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지옥같은 오사카 방직공장을 벗어나려다 또다시 속아서 매춘굴로 빠져들게 되었다.

아사리가 제공한 당시 발행된 〈하코다테신문〉 〈하코다테 니치니치〉 등에 의하면 1920년에 오사카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한국 여성이 하코다테로 온 기록이 있다. 1921년에는 여성 6명, 남성 1백명이 하코다테에 있었고 한국 요리점이 한군데 있었다.

한국 여성들은 ‘슈생야’(노동중개인)에게 속아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슈생야는 여성

들을 자기집에 두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외부와 차단시키고는 잘 먹고 시대를 구경시킨 뒤 돈을 들킵 받고 유곽에 팔아 버렸다고 한다. 이 무렵에 오사카나 홋카이도에 간 여성들은 대부분 15세에서 20세 정도였다.

매춘을 강요당한 많은 여성들은 이 덫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판단하자 죽음을 택하였다. 혼자 죽기도 했고 집단적으로도 많이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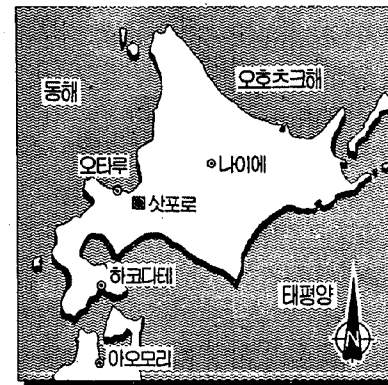
‘어머니’ 울부짖는 파도소리

그들이 죽음의 길로 택한 곳이 ‘자살의 명소’가 되어버린 ‘다치마쓰 미사키’라는 절벽이다. 하코다테 YWCA 소개로 필자의 안내를 맡아준 이케다 하루오와 함께 좁은 오르막길을 지나 다다른 절벽은 험하고 사나웠다.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부서지는 절벽 아래에는 파도에 휩쓸려 바위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 절벽에서 한번 떨어지면 살아남을 길은 없어 보였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절벽에 부서지는 파도소리가 “어머니—, 어머니—” 하고

집단투신한 절벽은 ‘자살의 명소’로

— 이화여대 윤정옥교수 ‘정신대’ 원혼 서린 발자취 취재기



울부짖는 소리로 들린다고 이케다가 전해주었다. 아사리가 보여준 1923년 12월18일자 〈하

여성들을 찾는 기사가 구인광고란을 채우기 시작했다. 포주들은 머리모양, 입고 있는 옷을 묘사하여 도망한 여성들을 찾기 시작했다.

1940년 1월7일자 〈오타루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유우바리 탄광에는 7백4명의 반도인 광부가 있다. “멀리 타향에서 국책산업에 종사하는 이들 전사를 위안하기 위하여 이들이 오기 전부터 일을 추진했으나 금번 협화료 근처에 3동을 개설하고 조선 향토요리점을 경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자치연 삿포로〉 38쪽의



일제가 강요한 매춘을 견디다 못한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몸을 던져 자살한 하코다테의 다치마쓰 미사키 절벽. 이곳 주민들은 파도소리가 “어머니, 어머니”로 들린다고 한다.

다테와 마찬가지로 큰 대문이 초입에 있고 그 안에 준비하게 요리집이 서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곳은 ‘다이몽도오리’(대문통)라 하고 조선요리집이 몰려 있는 곳을 ‘다이몽노 조선바’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 조선녀 박멸 기도”

조선 여성들은 일본 남성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흔적이 짙다. 1935년 1월27일 〈홋카이도 타임스〉에 의하면 “청년층을 쯔먹는 조선녀, 단호히 박멸할 것을 기도. 삿포로 경찰서의 강경한 태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이처럼 일본 당국은 한국 여성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는 묻지 않고 감시를 강화했다.

일본이 전쟁을 확대해가면서 일본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한국적인 요소를 ‘박멸’하려 애썼다. 삿포로의 한국요리점의 이름을 한국적인 것, 예를 들어 ‘도라지’라든가 ‘아리랑’ 같은 이름을 못 쓰게 하고 한국 여성이 입고 있던 치마와 저고리도 강제로 일본옷으로 바꿔 입게 했다.

가타다와 아사리는 홋카이도 개척사를 편집하다 보니 한국 노동자의 비참한 자료가 줄줄이 나와서 이제는 한국인 징용 관계와 매춘상황에 관해서 전문가가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이곳 비행장의 바닥에는 한국인의 시체가 깔려 있고 철도의 침목 하나하나가 한국의 징용부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다치마쓰 미사키에 부서지는 파도소리를 한국 여성의 원혼의 소리로 들을 수 밖에 없는 하코다테 주민들은 홋카이도 개척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한국의 남녀가 희생되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삿포로 개척맨 조선요리집 1백여곳 흥청 한국여성 1910년대 이미 도일 매춘 강요당해

코다테신문)에는 “가엾은 조선 미인의 죽음. 17세”라는 기사가 있었다.

이곳에서 죽은 한국 여성에 관한 기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신문에는 “일본인들의 심한 학대에 못 견디 항의하던 여인들이 옷까지 벗겨 거리로 내쫓았다”라는 기사도 있었다.

1935년 6월20일자에는 “오전 2시께 머리를 풀어헤치고 반쯤 옷을 벗은 여인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을 순사가 발견”이라는 기사도 보인다. 이방수(20)라는 이 여자는 ‘정덕수’라는 요리집에 있었는데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병이 났어도 약도 쓰지 못해 정신착란을 일으킨 것이었다.

한국여성 자살보도 금지령

1941년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한국의 남녀 젊은이들을 더 많이 끌어들였다. 이 중에 많은 여성들이 계속해서 자살했고 신문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보도했다.

드디어 1943년 일본 당국은 한국 여성의 자살을 기사화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1940년쯤부터는 무단기출을 한

“삿포로에서의 조선요리점의 변화”라는 대목을 보면 1920년대에 처음부터 조선노동자 상대의 위안부를 둔 조선요리점을 개설했다는 것이다.

이 기록은 또한 일본 여성에게 실시됐던 공창제도를 한국 여성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서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매춘을 강요당한 한국 여성들이 인권, 임금, 위생과 후생면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1930년에 들어서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본래 삿포로의 조선요리점은 조선 노동자를 위해 5~6곳 세워진 것인데, 일본 남성들이 한국 여성을 좋아하여 이곳이 곧 일본인 상대의 요리점으로 변해버렸다.

1935년경의 경찰발표에 의하면 이런 곳이 67곳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백곳이 넘었을 것이라고 이 기록은 말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하코다테 아니면 오타루에서 온 여성들로 일본말을 잘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조선사람에게는 절대로 일본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 여성들이 있는 요리집이 몰려 있던 곳은 도요히라라는 거리에 한정되었고 하코